

HIGH CLASS SENIOR SOCIETY &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017 AUTUMN VOL. 32

# THE CLASSIC 500



ICON

꿈꾸는 사람, 꿈꾸는 책

TRAVEL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프라하 그리고 체스키크룸로프

HOTEL

뷰티 인사이드 펜타즈 호텔

## CONTENTS

---

02	INSIGHT	반 고희, 책으로 그린 그림
04	ICON	꿈꾸는 사람, 꿈꾸는 책
10	SPACE	가을 핫 플레이스 도심 속 도서관
14	TRAVEL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프라하 그리고 체스키크룸로프
20	STYLE	그 남자의 패션, 시니어 가을 스타일링
22	PEOPLE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후원 회장, 박정희 회원 내 생애 가장 멋진 홀인원, 조규원 회원

---

26	PENTAZ HOTEL	뷰티 인사이드 펜타즈 호텔
34	LA GOUTTE	라구뜨 가을맞이 신메뉴
40	PROMOTION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안내
42	FINANCE	한국투자증권 건대역지점 추천 재테크 전략
44	FOCUS	더 클래식 500·KEB하나은행 공동 개발 신탁 상품

---

46	NEWS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 더 클래식 500 소식
----	------	-------------------------------------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사내보 / 계간 THE CLASSIC 500 가을호 통권 32호 발행일 2017년 9월 20일 발행인 박동현  
발행처 THE CLASSIC 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82-2-2218-5000 www.theclassic500.com 광고문의 +82-2-2218-5546  
촬영 노병연, SSSAUNA STUDIO 김경수 디자인&기획·편집 hongdesign&hongC +82-2-6916-4400



## 서서 하는 독서, 앉아서 하는 여행

누군가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책 속에서 ‘길을 아는 지식’을 얻고, 여행을 하며 책에선 볼 수 없던 ‘길을 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걸어가는 가을, 더 클래식 500에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풍요로운 시간을 누리보세요. 더 클래식 500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앤트리와 더불어 영어회화, 컴퓨터 기초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품격있고 지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더 클래식 500> 매거진 가을호에서는 ‘독서와 배움’의 메시지를 담은 정보와 공감의 콘텐츠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명화에서 찾은 책의 의미, 우리 시대 대표 작가와 그들의 저서, 도심 속 트렌디한 도서관과 작가들이 사랑한 도시 프라하까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반 고흐, <아들의 여인>,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3.5 x 92.5cm

## 책으로 그린 그림

반 고흐는 20대 후반부터 오로지 그림만 그리다가 간 천재 화가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학력이고, 몇 가지 직업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 삶 속에서 그에게는 독서만이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소설은 물론 미술과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가리지 않고 읽었다. 이처럼 반 고흐가 대단한 독서가였음은, 그가 남긴 수백 통의 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스큐로스』같은 고전부터 현대 소설까지 편지에 언급되는 책만 해도 300종이 넘는다. 편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독후감을 편지로 쓴 셈이다.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공쿠르 형제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묘사한 여성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낄수록, 더욱 욕심이 생긴다”라거나 심지어 “문학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이 인물화가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쓴 편지도 있다.

그렇게 읽은 책들은 번뜩이는 구도와 색채로 화폭에 재현되었다. 누구의 그림보다 책이 자주 등장하고, 책은 그림에서 생명력을 얻었다. 반 고흐의 그림 속 책은 그림의 성격, 즉 현대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옆의 그림 <아들의 여인>도 책을 등장시킨 그림이다. 고흐는 책에는 영혼과 직결되는 깊은 감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인을 도와준 지누 부인을 술집 여주인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책과 함께 그려 존엄성을 부여했다. <아들의 여인> 그림은 총 여섯 점인데, 그중 두 점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해리엇 비처 스토포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소품으로 등장시켜 주인공을 자애로운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평생 책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독서하는 사람’으로 일관하며 살아온 반 고흐. 그는 끊임없이 독서하고 탐구하며 세계 미술사를 바꾸는 미의 혁명을 추구했다. 살아생전에는 무명의 화가였던 그가 1세기 뒤 인류의 눈을 바꾸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 덕분이 아니었을까.

천재 화가 반 고흐가 지독한 독서가였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가 읽은 책들은 번뜩이는 구도와 색채, 생명력을 얻은 그림으로 재현되었다.

글 박흥규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저자,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꿈꾸는 사람, 꿈꾸는 책

쉬지 않고 변화하는 소설가

Youngha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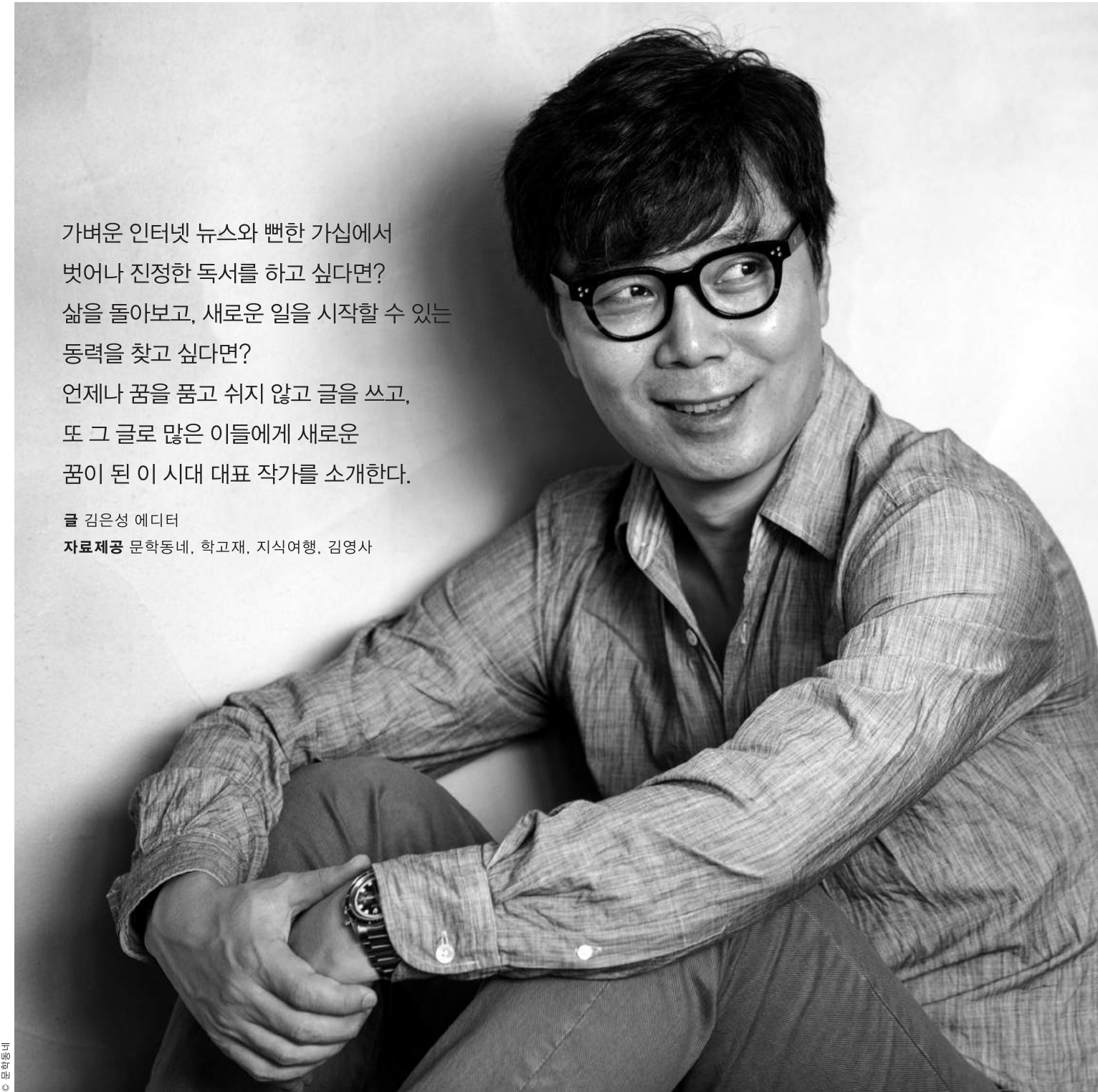
김영하 | 1995년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등단한 김영하는 '문학계의 양광테리블'로 불렸다.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상상력은 신선하고 독창적이었다. 이후 그는 국내 문학상을 휩쓸었고, 그의 책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십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극적인 요소도 많아서 영화, 연극, 드라마 등으로 2차 창작되기도 여러 번. 베스트셀러 『살인자의 기억법』은 설경구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했다. 요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알쓸신잡>을 필두로 강연회의 인기 연사로도 이름이 났다.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문학' 하나만 바라본다. 늘 변화를 추구한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장르 소설을 쓰나 싶다가도 어느새 순문학으로 돌아간다. 주제야 소설마다 다양하지만 김영하 문학은 스타일이 독특하다. 이전의 한국

문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개 방식, 서사적 구조는 버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으로 서술한다.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 역시 김영하 문학의 핵심이다. "단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소리내어 백 번 읽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날렵하고 제대로 쓰는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입에 붙지 않는 말은 모두 체로 걸러버리는 것. 김영하는 연작의 산문집 『보다』, 『말하다』, 『읽다』를 2015년 완성했다. 소설에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주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작가 김영하가 어떻게 탄생하고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김영하 작품세계의 뼈대가 된 고전을 '읽어' 그 가치를 공유했다. 전작의 소설들을 함께 읽어보며 비교하면, 산문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인터넷 뉴스와 빠른 가십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서를 하고 싶다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찾고 싶다면? 언제나 꿈을 품고 쉬지 않고 글을 쓰고, 또 그 글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꿈이 된 이 시대 대표 작가를 소개한다.

글 김은성 에디터  
자료제공 문학동네, 학교재, 지식여행, 김영사

© 문학동네



단어 하나를 위해 오늘도 연필을 짚는다

Hoon Kim

김훈 | 문학하기에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가 있다.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김훈이다. 김훈은 47세에 등단했다.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기사를 썼는데, 돌연 소설을 쓰며 인생을 전환했다. 늦게 데뷔했지만 웬만한 상이란 문학상은 다 탔다. 소설은 200만 부 넘게 판매됐고, 세계로 번역되어 나갔다. 대작가가 된 데는 잘 버린 칼날 같은 고유한 문체가 한몫했다. 그는 단 하나의 조사를 고르기 위해 몇 개월을 몰두하기도 한다. 최근 그의 소설 『남한산성』은 초판을 낸 지 10년 만에 100쇄를 돌파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대군을 피해 인조와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머문 47일을 그린 작품이다. 김훈은 이 소설에서 모호한

관념과 현실 사이에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묻는 인간형을 그린다. 늘 그랬듯이 압축적인 서사 사이로 나타나는 군더더기 없는 묘사는 백미 중 백미. “30페이지쯤 읽다 보면 독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한 줄 한 줄 되새기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훈만의 서사 장악력과 정밀한 묘사력에 대한 찬사가 흘러넘친다. 그의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김훈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는 동시에 추악함과 야만성을 함께 말한다. 만약 자신의 내면이 공감받고 이해받지 못하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글을 쓴다.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신념을 선택했기에 그의 문장은 오늘도 날카롭게 빛이 난다.



© LIT Korea

세계 최고령 데뷔 시인

Shibata Toyo



© 지시여울

시바타 도요 | 늦깎이 데뷔를 한 작가들 중에서도 그는 ‘레전드 급’이다. 시바타는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취미로 일본 무용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면서 글쓰기에 도전한 것. 실로 ‘재능의 발견’이었다. <산케이>신문 ‘아침의 노래’ 코너에 연재를 하다, 99세가 되던 2010년, 처음으로 시집을 낸다. 수년간 썼던 시를 모으니 한 권의 시집이 되었다. 장례비용으로 모아두었던 100만 엔을 몽땅 써서 만든 첫 시집은 한 권에 500엔을 받고 팔았다. 소문이 나자,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했다. 그리하여 시집 『약해지 마』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다. 특별한 기교는 없었지만, 솔직한 감정과 경험이 담겨있는 시에 사람들은 금세 매료되었다. 2010년 일본은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때였다. “아흔여덟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 또한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시 ‘비밀’) 누군가는 위안을 얻었고, 누군가는 인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의 따스함에 눈물을 흘렸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시인을 누가 사랑하지 않으리. 독자들도 그의 시에 답했다. “인생의 지혜와 충고를 부드럽고 따듯하게 전달하는 작가는 많지 않아요. 시바타 도요는 진정한 ‘어른 시인’입니다.” 2013년 1월, 그는 101세로 세상에서 떠났다. “언제나 시를 쓰고 있습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줬던 그의 100세 인생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였다.

# Yuval Noah Harari



© 김명사

유발 하라리 그는 계속 질문하는 작가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하여, 더욱 정밀하게 물어본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준다. 『호모데우스』에서는 지구를 정복한 인류가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고찰한다. 그는 묻는다. “그동안 인류는 ‘기아, 역병, 전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을 추구하고요. 과연 100년 뒤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한계를 모르는 과학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인문학과 공학, 인류학을 꿰뚫는 그의 지식과 통찰로 인류의 미래를 손에 닿을 듯 그려낸다.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시대다.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지가 구글과 각종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 읽을 책은 내 취향에 맞춰 구글이 추천해 줄 것이고, 다음 날 장 볼 거리도 구글이 대신 작성해 줄 거란 사실을. 빅데이터가 인류의 생활과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새로운 권위의 원천이 될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그 권위의 주도권을 구글과 같은 몇몇 업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책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면 위험하다.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 그의 책을 반드시 읽을 이유다.

## 작가들의 저서

언제나 꿈을 꾸고 또 독자들에게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시대 대표 작가들의 통찰력이 오롯이 담긴 흥미로운 저서들.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저 | 채숙향 역 | 지식여행

무게 잡는 어른이랑보다 먼저 걸어난 인생의 선배로서 상냥하게 지혜의 메시지를 건네는 에세이집. 누구나 경험했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다정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녀의 글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보다』, 『말하다』, 『읽다』 산문 세트  
김영하 저 | 문학동네

예술과 인간, 사회를 주제로 한 26개의 글을 담은 산문집 『보다』는 작가의 예리하고도 유머러스한 통찰을 보여준다. 『말하다』는 그가 해온 인터뷰와 강연, 대담을 새로운 형식으로 묶었다. 완결편 『읽다』는 독자로서의 작가를 발견할 수 있다. 김영하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호모 데우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 김명주 역(호모데우스), 조현욱 역(사피엔스) | 김영사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데우스’, 독창적 인문학자의 인류가 새롭게 맞이한 세계와 근본적인 미래 변화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만나볼 수 있다. 『사피엔스』는 10만 년 역사를 한 권으로 압축했다. 인간의 역사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생생하게 조명한다.



『남한산성』  
김훈 저 | 학교재

초판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다. 100쇄를 찍은 소설은 1636년 병자년 겨울, 청나라 10여만 대군이 에워싼 남한산성에서 47일간 서슬 퍼르게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연하게 그린다. 이번 개정판은 작가가 털어놓는 ‘못다 한 말’과 화가 문봉선의 그림을 실고, 디자인을 새로 했다.



## 가을 핫 플레이스, 도심 속 도서관

자연스레 책이 그리워지고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계절이 돌아왔다.  
질어지는 가을, 독서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한다.

글 안혜원 에디터

특별한 당신을 위한  
가장 특별한 문화공간

**더 클래식 500 도서관  
북엔트리와 AV룸 엔포에버**



책이 가장 좋아지는 계절인 가을, 맑은 하늘 덕에 문득 새로운 책을 찾고 싶어지는 날에는 더 클래식 500의 6층을 방문해보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는 더 클래식 500의 프라이빗 도서관 북엔트리가 있는 곳으로, 가득 채워진 책장과 함께 방문자를 맞이하는 소파와 테이블이 매력적인 공간이다.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과 피트니스 클럽 멤버십 고객만 이용 가능하여 아늑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책을 즐길 수 있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써도 손색이 없다. 그에 더해 회원들의 매너 있는 사용으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는 도서들 역시 자꾸만 북엔트리를 찾게 되는 이유이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10,000여 권. 많은 권수만큼 다양한 카테고리의 책들을 구비하고 있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도서관에서는 매달 10권 이내의 책을 구매하는데, 회원들의 취향을 담아 신중하게 선별한 도서들과 회원들에게 직접 신청받은 도서가 주를 이룬다.

물론 북엔트리 내에서만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에 다섯 권씩 2주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대출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북엔트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신청 도서나 예약 도서의 대출 여부를 미리 알려주거나 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책을 미리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다.

같은 층의 AV룸 엔포에버는 더 클래식 500 회원과 가족을 위한, 극장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미니 영화관이다. 영화 DVD 650장, 공연 DVD 380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할 경우에는 홀로 영화를 볼 수도 있다. 휴관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와 4시에 영상물이 정기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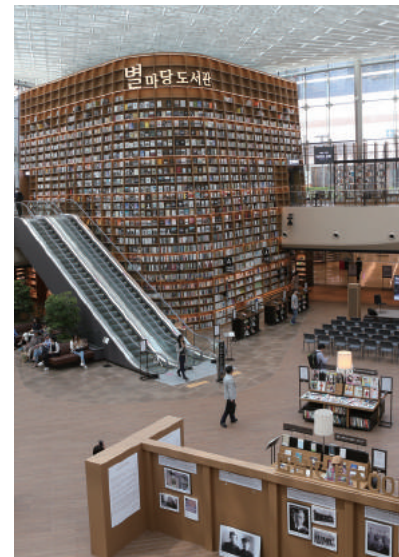
문의 02-2218-5760



1



2



3

## 출판인들의 관심이 담긴 문화공간

### 지혜의 숲

파주 출판단지에서 자리 잡은 '지혜의 숲'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치 있는 책을 모아 보존하고 공공의 서재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졌다. 이곳은 보유한 책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지혜의 숲 1구역은 학자와 지식인이 기증한 도서가 보관되어 있다. 2구역에는 출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장서가 정리되어 있고, 3구역은 출판사나 유통사,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기증한 다채로운 도서들이 반겨준다. 이외에도 지혜의 숲은 출판단지 내 출판사들과 함께 다양한 인문학 강좌나 북 콘서트 등을 열며 도서관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잠시 서울을 벗어나 책의 문화가 꽃피는 곳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 영화인들의 서재 옛보기

### CGV 씨네 라이브러리

상영관 하나가 통째로 도서관의 모습을 하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이다. 전문 영화 서적과 영화의 영감을 얻은 문학 서적, 그리고 영향을 받은 예술 서적 등 대략 만 권이 넘는 책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책장과 더불어 큼직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영화관에서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특히, '톡(Talk) 프로그램'과 'CGV 아트하우스 클래스'는 영화와 책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주는 씨네 라이브러리만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당일 영화관의 영화표를 제시하거나 CJ 포인트를 사용하여 들어갈 수 있으며, 영화와 책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할 매력적인 장소로 손꼽힌다.

위치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5-9 하이해리엇 10, 11층

## 성숙한 시민의 낭만적인 쉼터

### 별마당 도서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어느 날 거대한 책장이 생겨나더니, 어느새 도서관이 자리를 잡았다. 멈춤과 비움, 채움, 그리고 낭만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지닌 별마당 도서관은 코엑스몰을 찾는 시민들의 유익한 도서관이자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신세계 기업의 후원으로 세워진 이곳은 대략 5만여 권의 도서가 채워져 있는데, 그중 80%는 시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별마당 도서관의 특색이자 자랑거리이다. 또한, 매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다양한 명사들의 강연과 음악회가 열려 부담 없이 여러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 문득 문화 충전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휴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 둘레길 한옥에서 만나는 문학

### 청운문학도서관

종로구 인사동에서부터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넘어 이어지는 문학 둘레길에 가면 조금 특별한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자연에 둘러싸여 한옥 특유의 매력을 내뿜고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주변에 문학 관광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덕에 문학 특성화 도서관이 되었다. 그 덕에 시와 문학을 위주로 테마가 있는 문학들을 주로 소장하고 있으며, 종로에서 활동한 근현대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과 강연, 전시, 공연, 독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문학 도서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고 있다.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초목에 둘러싸여 독서를 즐기기에 좋은 아름다운 도서관이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 서점의 편견을 깬 과학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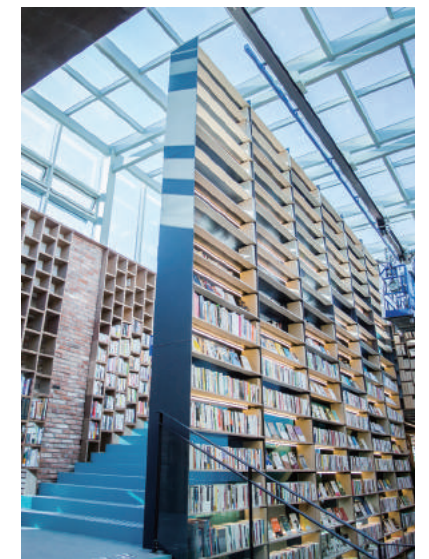
### 북파크

서점이 '책을 사러 가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꿈꾸는 북파크 역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높은 책장과 함께 곳곳에 마련된 의자와 테이블은 누구든지 편히 책을 볼 수 있다는 듯 놓여있다. 한쪽에 마련된 카페 덕에 커피와 함께 느긋하게 책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쉽게 찾기 힘든 과학 도서와 잡지, 관련 서적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3층의 홀에서는 과학 강연을 열며 대중들이 과학에 친근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덕분에 이곳은 이태원에서 잠시 실 곳을 찾거나 멋진 서점의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늘 붐빈다.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4



5

- 1 지혜의 숲
- 2 CGV 씨네 라이브러리
- 3 별마당 도서관
- 4 청운문학도서관
- 5 북파크



체코의 아름다운 명소들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어왔다.  
이 가을, 그들이 사랑했던 프라하와  
체스키크룸루프에 깃든 이야기들을 들추어  
이 도시를 온전히 즐겨보자.

글 이한규(여행 작가)

**로맨틱 프라하로 떠나는 가을 여행**

유럽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프라하가 1위 일 것이다. 여느 유럽 도시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연인, 부부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배경으로도 알려졌다. 중앙 유럽에 위치해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유럽 국가의 음식을 비롯한 문화 양식을 경험할 수도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유럽의 보석이라 불리는 프라하는 옛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로써, 중세 거리의 낭만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덕분에 여행자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2세기 지어진 구왕궁과 체코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투스 대성당,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이르지 성당, 연금술사들이 살았다는 황금소로까지 볼거리도 무궁무진하다. 프라하는 그 전경만으로도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라하 전경을 가장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은 구시청사 탑이며, 블타바 강변 스메타나 박물관 앞에서 카를교가 있는 프라하 성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도 추천한다.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프라하  
그리고 체스키크룸루프





1



2

카프카가 글을 썼던 곳,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카페와 펍,  
토론과 집회의 메카였던 바츨라프 광장  
등 품격있는 명소들을 돌아보며  
영혼을 살찌우는 프라하 여행.

- 1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던 바츨라프 광장의 기마상
- 2 프라하에서 가장 로맨틱한 카를교 풍경
- 3, 4 체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인 프라하 성
- 5 프라하 거리의 예술가들

**역사적 사건의 무대와 예술가의 공간**

바츨라프 광장은 체코의 민주자유화운동이 피어나고 좌절된 곳이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났던 그곳은 현재 호텔과 백화점, 부티크 등이 늘어서 있는 프라하 최고의 변화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체코 국립박물관에서 무스텍 광장에 이르는 길이 750m, 폭 60m의 바츨라프 광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늘 생기가 넘친다. 프라하를 더욱 온전히 보려면,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공간을 거닐어 보는 것도 좋다. 프라하 성과 바츨라프 광장 사이의 구시가지에는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즐비하다. 카를교 남쪽에 위치한 레기오 초입에는 카페 슬라비아가 있다. 1884년 문을 연 이래 슬라비아는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어왔다. <나의 조국>을 작곡한 음악가 스메타나부터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까지, 많은 이들이 카페에서 만 들어냈을 이야기들을 커피 한잔과 함께 떠올려보자. 카페 슬라비아와 카를교 사이엔 극작가 바츨라프 하벨과 소설가 보후밀 흐라발이 즐겨 찾았다는 황금호랑이 펍이 있다. 10석밖에 안 되지만 전통 있는 필스너 맥주 펍으로 늘 붐빈다.

**가을밤의 프라하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

특히 가을이 되면 프라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인다. 밤의 도시를 가득 메운 불빛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쪽 언덕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프라하 성과 성비투스 대성당일 것이다. 프라하성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색채를 입은 집들이 아기자기 들어서 있다. 바로 관광객이 늘 붐비는 황금 소로이다. 황금 소로는 16세기경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은은한 금빛 조명들에 몸을 맡긴 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황금 소로 2번지에는 실존주의 소설가 카프카의 작업실이 있다. 카프카는 이 조그만 작업실에서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다. 그의 소설 『성』을 읽다 보면, 이 황금 소로 골목을 떠올리게 된다. 카프카를 읽으며 몽환적인 그의 삶에 발을 디뎌보자.



3



4



5



© David Blaikie, Flickr

1

프라하와 체스키크룸로프, 이 도시들이 존재해나가는 몇백 년의 기간 동안 예술가들은 그 기억들을 아름다운 글로 써 내려갔다. 그들이 써 내려간 이야기들에 몸을 맡긴 채 체코의 도시들을 거닐어보자.



2

**보헤미안의 진주, 체스키크룸로프**

프라하에서 세 시간 남짓, 남쪽으로 향하면 보헤미안의 진주 체스키크룸로프를 만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의 자취가 진하게 묻어 있는, 5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된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곳은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받게 됐다. 주황빛 지붕과 등근 탑,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체스키크룸로프 성이 잘 어우러져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들이 가득해 보는 재미도 있다.

체스키는 체코어로 '체코의'를 의미하며 크룸로프는 독일어를 어원으로 하며 '강의 만곡부 습지'를 의미한다. 도시가 한 눈에 보이는 성곽에 올라 멀리 굽어보면 그 이름의 유래가 쉽게 이해된다. 도시 한 뼘이 몰다우강의 자락에 휘감긴 모양새다. 에곤 실레는 이 도시를 배경으로 몇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몰다우강 변의 크루마우의 풍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다. <집들로 된 만곡, 또는 고립된 도시>는 배경이 체스키크룸로프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 에곤 실레는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였고, 직접 거주하며 작품을 남기기도 하여 이후 에곤 실레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chialinstih, Flickr

3

- 1 몰다우 강 자락에 휘감긴 모양새의 도시
- 2 에곤 실레가 사랑한 체스키크룸로프의 풍경을 그린 그림 <몰다우강 변의 크루마우의 풍경>
- 3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림 같은 마을

닉 우스터,  
나이는 고정관념일 뿐

## Rock Chic



## 그 남자의 패션

패션,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동시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 확고한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가진 시니어 스타일의 아이콘, 세 남자를 만나보자.

글 김민정 (전 <그라치아> 패션 에디터)

많이 볼수록 잘 입는다는 것은 패션에서 근의 공식만큼이나 일반적인 얘기다. 랄프로렌, 존 바틀렛, 버그도프 굿맨, 니만 마커스에 이르기까지 '남성 패션의 적통'을 거쳐 온 패션 디렉터 닉 우스터는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을 뽑낸다. 록시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60대, 그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담함이다. 닉 우스터에게는 '나이 들어서 안돼'라는 것이 없다. 20대나 입을 법한 아방가르드한 팬츠도 입고, 반항적인 바이커 재킷도, 플라워 같은 화려한 패턴도 즐긴다. 닉 우스터의 과감한 스타일을 무작정 좇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고, 아이템을 선택하는 대담함은 본받을 만하다. 몇 해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윤여정에게 패션의 비결을 묻자 그녀는 '김민희와 같은 옷을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닉 우스터는 '할아버지'를 위한 옷을 입지 않는다. 나이의 굴레는 잊고, 입고 싶은 옷을 눈치 보지 않고 입는다. 그와 같이 대답해지기 위해선 우선 자주 가는 패션 브랜드를 바꿔보길 조언한다. 손자와 함께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리노 이엘루치,  
중후한 품격을 스타일링

## Classic



"나는 패션보다 스타일을 사랑한다. 패션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슈트를 입어온 이탈리아 출신의 리노 이엘루치는 품격 있는 스타일링 내공을 가지고 있다. '알바자'라는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그에게 패션은 유쾌한 실험실과 같다. 특히 중후한 멋을 지닌 더블 브레스트를 즐기며 행커치프, 스카프, 팔찌 등 보통 남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를 애용한다. 슈트는 블랙, 네이비, 그레이만 있다고 생각했다면 쪽빛 슈트나 크림 컬러 재킷, 핑크색 코트 등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리노 이엘루치처럼 우아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패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슈즈도 마찬가지다. 까만 정장구두 말고도 브라운 톤의 몽크 스트랩, 버건디 컬러의 스웨이드 로퍼 등 변주를 준다면 세련된 품격을 갖출 수 있다. 덧붙여 내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자. 그러다 보면 옷장을 열었을 때 모든 아이템이 한가지 스타일로 통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패션에서는 와인과 비슷한 깊은 풍미가 느껴질 테다.

여용기,  
나를 드러내는 고유한 포인트

## Twist



남성 패션에서 클래식을 말할 때 '트위스트'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스탠더드한 클래식 라인이지만 버튼이나 스티치, 스타일링에서 비틀어진 독특함을 가미하는 것을 트위스트라고 부른다. 클래식의 진짜 대가들은 자신만의 트위스트로 패션의 감도를 겨룬다. 부산에서 열일곱 살 때부터 지금까지 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여용기는 트위스트에 능한 인물이다. 여용기는 트위스트에 앞서 원래 입던 치수보다 한 치수 작은, 본인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길 권한다. "줄여 입으면 젊게 입을 수 있어요. 막상 그렇게 입으려고 하면 겹부터 납니다. 불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멋을 내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해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스타일로 트위스트 해보자. 이를테면 셔츠 단추 컬러를 하나만 바꾸거나 무늬 있는 양말을 신거나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는 식이다.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다. '남들이 다하는 것'을 뛰어넘어 재미료를 한 번 더 쳐서 나만의 패션으로 표식을 남기는 것, 바로 트위스트의 포인트다.

자  
원  
봉  
사  
단  
그  
리  
고  
살  
을  
가  
득  
채  
우  
는  
에  
너  
지

더 클래식 500 박정희 회원



유쾌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입가를 떠나지 않는 은은한 미소, 활력 넘치는  
에너지의 소유자 박정희 회원이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의 후원 회장을 맡았다.  
후원회장으로서 마음가짐, 그리고 뜨거운  
에너지의 원천인 취미생활에 대해 들어봤다.

글 백수정 에디터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

무더웠던 여름의 한가운데, 지난 8월 8일 박정희 회원은 말  
복을 앞두고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후원 회원들과 함께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자원봉사단에서 여름마다 해  
오던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위해서였다.

"7월에 자원봉사단의 후원 회장직을 맡게 된 후 처음 치르는  
큰 행사였어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지역 주민 200분  
정도 초대해서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삼계탕으로 든든하  
게 기력을 보충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되었죠."

2011년 설립된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지 어언 7년째,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고 지속  
적인 봉사가 이루어진다.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장학금을 후  
원하고 국내외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하면 선금을 내기도, 아  
픈 아동들에게 수술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더욱 뜻깊게 사용할 수  
있을지 후원 회원들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의  
미 있게 쓰이길 바라는 후원금이 매달 꽤나 모이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더 클래식 500의 이름으로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입주 회원들이 자원봉사단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제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력 넘치는 성격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행하길 즐기는 박정  
희 회원은 자원봉사단 후원 회장이란 큰 업무를 맡으면서도  
어려울 것 없다면 그저 마음을 조금 더 쓸 뿐이란다. 오히려  
더 클래식 500직원들의 고생을 헤아린다. 젊은 시절부터 어  
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자선 단체에

오랫동안 기부를 해왔다는 박정희 회원에게서 넉넉한 인품과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매일매일, 오늘을 가장 즐겁게**

자원봉사단 일정이 없는 날에도 박 회원의 하루는 바쁘다. 활  
기찬 에너지를 타고난 그녀답게 텃밭 가꾸기와 요리, 운동  
과 그림 그리기 등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  
장 좋아하는 취미는 고난도의 두뇌 싸움을 펼치는 카드 게임  
'브리지'다. 1986년, 아시안게임 통역 자원봉사를 하다가 입  
문한 후 완전히 매료되어 요즘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브리지  
클럽으로 향한다.

"브리지는 머리로 즐기는 스포츠이면서 사교활동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브리지를 함께해 온 친구들이 많죠. 저희 집에서 내  
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아서, 종종 친구들을 더 클래식 500으  
로 초대해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게임을 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박정희 회원은 한 달에 10일 정도는 꼭 전원생활을 누  
린다. 10년 전, 공기 좋은 곳에서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고  
지내며 좋아하는 꽃도 가꾸고 싶어 강원도 원주에 마당이 넓은  
집을 마련했다. 서울과 원주에서의 삶을 모두 영위하는 기  
쁨은 컸지만 두 채의 집을 관리하자니 바쁘기도 했다.

"처음 더 클래식 500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것을 관리해주시  
빈집 걱정 없이 드나들 수 있어서였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  
니 다른 장점도 많아요. 운동 시설도 잘 되어있고, 건강체크  
를 받으러 병원을 다니기도 편리해요. 무엇보다 천연 암반수  
스파 시설이 최고입니다(웃음)."

원주 집에는 이제 곧 구절초가 필 때라며 빙긋이 웃어 보이는  
박정희 회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매일 건  
강할 것. 그리고 즐거울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자신의  
삶을 즐겁게 누리며, 동시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그녀의  
뜨거운 삶은 꽃이 만개한 정원처럼 아름답다.

내 생애 가장 멋진 홀인원

더 클래식 500 조규원 회원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힘들다는  
홀인원과 에이지슈팅을 91세 시니어로서  
화이트 티에서 성공했다.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 조규원 회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더 클래식 500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서 조 회원을 만나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글 이영진 에디터

**'럭키 세븐'이 가져다준 행운**

조규원 회원은 소싯적 이글은 꽤 해봤지만, 에이지슈팅과 홀인원을 동시에 성공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2017년 7월 17일, 조 회원은 지인들과 경기도 하남 캐슬렉스 GC에서 그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홀인원의 기적을 맞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잘 맞았다' 싶은 공이 그린 위에 떨어진 후 홀컵을 향해 데구르르 구르더니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갔다.

"2017년 7월 17일이었어요. 아이언 7번으로 쳤지요. 어찌다 보니 '럭키 세븐'이 반복되더라고요. 평소에 숫자 7을 가장 좋아하긴 했는데 이런 행운과 함께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흔하나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장한 체격과 멋진 스타일, 싱그러운 미소를 가진 조규원 회원. 그는 당시 라운딩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연 최고령이었다. 나이로도, 골프 스코어로도 좌중을 압도한 셈이다. 조 회원은 그 비결로 꾸준한 체력 관리를 꼽았다.

"매일 아침 1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해요. 더 클래식 500 피트니스 클럽에서 2~3km 워킹, 체력 단련을 합니다. 라운딩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더 클래식 500 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요. 무엇보다 제 건강엔 더 클래식 500의 지리적 위치가 한몫했어요. 교통이 편리해서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으니 덕분에 자연스레 걷기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체력적으로는 70대하고도 별로 차이를 못 느끼네요."

**55년째 골프는 내 인생의 동반자**

조규원 회원은 1964년,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골프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지만 치면 칠수록 재미가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다. 나이가 들면서는 골프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느꼈다. 지금도 여전히 1주일에 1~2회는 꼭 라운딩을 나가고, 아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중에도 골프 코스를 빼놓지 않는다.

이처럼 54년째 골프를 꾸준히 치다 보니 조 회원에게 골프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골프를 통해 얻은 인내와 삶의 지혜 역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8홀 코스를 하나씩 섭렵하다 보면 스코어가 무너지기도 하고, 버디가 쏟아져 나오는 행운도 맛볼 수 있듯 인생의 긴 여정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교차한다. 다만 그 여정을 지나는 과정에서 '기본'을 지키며 중심을 잡는 태도는 조 회원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골프는 신사도 정신과 예의가 강조되는 스포츠 오락입니다.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매너를 지키는 태도는 인생에서나 골프에서나 똑같이 필요한 법입니다."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한 지 올해로 6년째라는 조 회원은 골프는 물론, 운동을 좋아하는 회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규원 회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살다 보니 자꾸만 그 시절처럼 싱그러워지는 중이다.



경기를 함께한 회원분들



여름 무더위와 명절 노동으로 심신이 지쳤다면?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  
편안한 가을의 감성과 완벽한 부대시설을 갖춘 펜타즈 호텔에서  
여유로운 힐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진 노병연  
스타일링 안유미(FOOD&PROP)

# *Beauty Inside*

## PENTAZ HOTEL

도심 속 가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슈퍼리어 스위트, 스위트는 125.62㎡의 널찍한  
객실 공간을 자랑한다.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 역시 가슴을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다. 아차산과 한강, 남산타워, 어린이대공원, 서울 숲, 건국대학교 캠퍼스  
일감호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동서남북 최고의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도심의 가을 전경을 감상하며 책을 읽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자.



완벽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에서  
스트레스는 비우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가을의 감성을 채워보자.





가족과 함께  
웰빙 이너뷰티를  
실천하는 공간

펜타즈 호텔은 완벽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컨디션, 모던하고  
세련된 콘셉트의 실내 인테리어로  
특별한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다이닝 공간은 최고급 대리석과  
원목 자재의 아일랜드 스타일로  
중후함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공간이다. 와인셀러, 오븐,  
조리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어  
가족 맞춤형 웰빙 이너뷰티를  
경험할 수 있다.



## 가을 정취 품은 프리미엄 레지던스 호텔

거실에서 독립된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의 침실은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련된 유럽풍 스타일의 감각적인 실내 디자인과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는 물론 온도와 습도, 환기 및 냉난방을 생활 패턴에 맞추어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더욱 편안하다. 이처럼 완벽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펜타즈 호텔에서 스트레스는 비우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가을 감성으로 채워진 '나'를 만나보자.

특히 올가을에는 호텔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Autumn Flavor at PENTAZ' 패키지를 이용해보자. 어텀 플레이버 패키지는 가족 또는 커플 고객들이 넓고 쾌적한 펜타즈 호텔 객실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었다. 총 두 가지 타입으로 3인 가족 고객을 위한 패밀리 타입은 슈퍼리어 스위트 객실 1박, 카페 마실 생크림 과일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제네바 길드 어메니티 2세트, 웰컴 하우스 레드와인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클럽권 이외에 스파는 50%, 라구뜨 뷔페는 20%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주중 25만 3,000원, 주말 33만 원에 판매된다. 커플 타입은 스위트 객실 1박, 제네바 길드 어메니티 1세트 이외에 포함된 상품은 패밀리 패키지와 동일하고 가격은 주중 23만 1,000원, 주말 30만 8,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객실 문의 02-2218-5777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유독 무더웠던 여름을 견뎌낸 과채는 햇살을 한껏 받아 곱게 여물었고, 생선은 제철을 맞아 그 맛을 뽐내고 있다. 어느새 찾아온 서늘함에 자연스럽게 든든한 음식을 찾게 되는 요즘, 언제나 신선한 식자재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라구뜨 뷔페에서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가을을 만나보자.

사진 노병연  
스타일링 안유미(FOOD & PROP)

## KOREA

**우엉 잡채** | 섬유소질과 이눌린이 풍부한 우엉을 채 썰어 간장에 졸인 뒤 각종 채소와 버무렸다. 쇠고기와 숙주, 그리고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색감을 내며 아삭한 식감에 기분도 좋아진다.

# 라구뜨에서 만나는 곱게 물든 가을 한 상





## JAPAN

**전어 고바찌** | 전어를 세꼬시로 썰어 씹새로운 맛의 시소와 참깨로 버무려 담았다. 한창 제철을 맞은 가을 전어는 다른 계절에 비해 지질 함유량이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히라메 고노와다 덮밥** | 초대리로 맛을 낸 밥 위에 고노와다와 히라메를 올렸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신선한 광어와 해삼 내장으로 만든 고노와다, 그리고 날치알의 조합이 훌륭하다.

**문어조림** | 슬라이스한 신선한 문어를 흑초로 맛을 내어 장시간 조렸다.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저하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문어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모듬 초밥** | 신선한 전어와 청어를 초밥으로 예쁘게 빳었다. 청어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고, DHA와 EPA를 많이 함유한 전어는 성인병을 예방한다.



## HOT

**피데오와 모듬 해산물** | 라틴 스타일의 피데오를 새우, 조개와 함께 넣어 끓였다. 굵기가 가늘어 스프레 주로 넣어 먹는 스페인 국수를 많이 구워내어 재미있는 식감을 더했다.

**가지 튀김** | 항암 작용을 하는 가지를 튀기고 흑임자 소스를 얹어 마무리했다. 된장과 가스오부시를 넣어 만든 흑임자 소스가 가지 튀김과 만나 인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양고기 리소토** | 건국대 농장에서 키운 쌀을 살짝 볶은 후 한입 크기로 자른 양고기와 강남콩, 치즈 생크림을 가미해 깊은 풍미를 지닌 리소토를 완성했다.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LA갈비** | 양질의 고기를 정갈하게 썰어 직화로 구워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마리네이드한 덕에 부드러운 육질이 살아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 COLD

**두부채 오징어 샐러드** | 채 썬 두부와 오징어에 피쉬소스와 레몬, 양파로 맛을 낸 타이 스타일의 드레싱을 뿌렸다. 두부와 채소, 그리고 달과 살룩으로 맛을 낸 오징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무화과 라디키오 샐러드** | 무화과와 라디키오가 꿀과 씨겨자로 맛을 낸 레드와인 비네거 드레싱을 만나 샐러드로 탄생했다. 자색의 씹사름한 라디키오는 신체의 산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게살 샐러드** | 신선한 채소와 게살, 블랙올리브를 상큼한 샐러드로 버무렸다. 가을에 가장 맛있는 사과와 오렌지 제스트로 만든 처트니가 고소한 게살과 어우러져 식욕을 돋운다.

**새우 포션** | 키토산과 칼슘을 많이 함유한 새우를 살짝 데쳐 칠리 소스에 무치고 와인에 절인 사과와 허브를 올렸다. 제철 새우는 콜레스테롤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 제격이다.



## BAKERY

**팔을 넣은 녹차 파나코타** | 생크림과 우유로 만든 부드러운 파나코타에 녹차 가루를 넣어 녹차의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그 위에 팔을 올려 고소한 맛을 더했다.

**무화과 생크림 케이크** | 폭신한 시트에 부드러운 크림을 얹고 무화과를 올렸다. 효소와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한 무화과는 가을에 제철을 맞아 상큼한 단맛을 내며 생크림과 잘 어우러진다.

**화이트 초콜릿 미니 롤케이크** | 부드럽게 구운 롤케이크 시트 위에 머랭을 섞은 화이트 초콜릿을 샌딩했다. 보통 초콜릿보다 더욱 달콤하고 진한 우유 맛의 화이트 초콜릿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 Pentaz Prestige Membership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폭 강화한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카드이다.  
더 클래식 500에서 고객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하고도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자.

###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카드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가입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500,000원(VAT 포함)
이용기간/횟수	1년/제한 없음
가입 신청 및 문의	02-2218-5300



## 진정한 프레스티지 라이프를 위하여,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주말 가족 외식, 스파, 피트니스, 연휴 객실 이용 등 다양한 호텔 시설을 이용하며 프레스티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레지던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이 차별화된 서비스에 혜택은 대폭 강화한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을 새롭게 출시했다.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 1박 무료 이용권(조식 포함)과 라구뜨 2인 식사권, 스파 이용권 2매를 제공받게 된다. 펜타즈 호텔의 다양한 객실 패키지 역시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키지에도 할인이 가능한 만큼(일부 상품 제외),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펜타즈 호텔을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다. 객실을 예약하기 어려운 성수기에도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의 혜택으로 연중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프리미엄 뷔페 라구뜨 이용 시에도 인원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스파 이용 20% 할인권 등 특전이 포함되어 펜타즈 호텔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문의 02-2218-5300

### 프레스티지 멤버십 특전

#### RESTAURANT DISCOUNT 식음 특전

<b>혜택 1</b>	1~2인   식료 전체 20% 할인 3~7인   1인 무료 8~19인   2인 무료 20인 이상   식료 전체 15% 할인
-------------	---

<b>혜택 2</b>	베이커리 10% 할인 음료 및 주류 10% 할인 Corkage Charge 1병 무료 및 추가 반입분 10% 할인 연회 식음료 10% 할인
-------------	---

#### ROOM DISCOUNT

##### 객실 특전

<b>혜택 1</b>	객실 주중 55%, 주말 50% 할인
<b>혜택 2</b>	객실 패키지 10% 할인 객실 예약 및 문의 02-2218-5777

#### OTHER BENEFITS

##### 기타 특전

<b>혜택 1</b>	스파 이용 시 20% 할인 SWISPA 스킨케어 30% 할인
<b>혜택 2</b>	기념일 케어 서비스 (연 1회 생일 또는 기념일 꽃 & 와인 제공) *사전 예약 필수

#### VOUCHER

##### 바우처 안내

<b>혜택 1</b>	스위트룸 1박 무료 이용권/조식 2인 포함
<b>혜택 2</b>	라구뜨 2인 식사권
<b>혜택 3</b>	스파 이용권 2매

## 한국투자증권 WM Premier 건대역지점

긍정적인 전망의 2017년의 국내시장,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을 비롯, 다양한 고객들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투자증권 건대역지점에  
그 방법을 물었다.



왼쪽부터 이용진 차장, 김길남 차장, 이은선 차장, 정병권 대리, 신혜라 대리, 박로진 차장, 김태원 주임

## 2017년 하반기 자산관리 재테크 전략

올해 국내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19%가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었다. 추경예산이 편성된 하반기 시장 역시 이익 모멘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반기에 효과적으로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와 대체투자에 주목해야 한다.

###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상품의 적극적 활용

현재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재정비 방침을 표명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므로 절세 상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2017년 12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3,000만 원 한도 내 가입 후 10년간은 해당되는 펀드의 매매, 평가, 환차익이 비과세된다. 'ISA'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 2,0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계좌 내 손익 통산하여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차후 3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며, 초과분은 9.9%의 분리 과세가 붙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IRP 합산 시에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통합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 협약이 이루어져 있어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투자증권 건대역지점은 그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편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추천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 추천 상품

상품명	펀드명
글로벌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러지 펀드
	한국투자SSG글로벌저변동성 펀드
	한국투자웰링턴글로벌밸류 펀드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펀드
아시아	피델리티아시아 펀드
	삼성아세안 펀드
	삼성인디아 펀드
중국	KB중국본토A주 펀드
	삼성중국본토중소형포커스 펀드

### 대체투자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예정이다. 반면 글로벌 지역 및 지역별 임대료는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상품에는 미국 지역의 하나NASA부동산 펀드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본사 펀드, 일본 지역의 한국아리아케 부동산펀드 등이 있다.



문의 02-467-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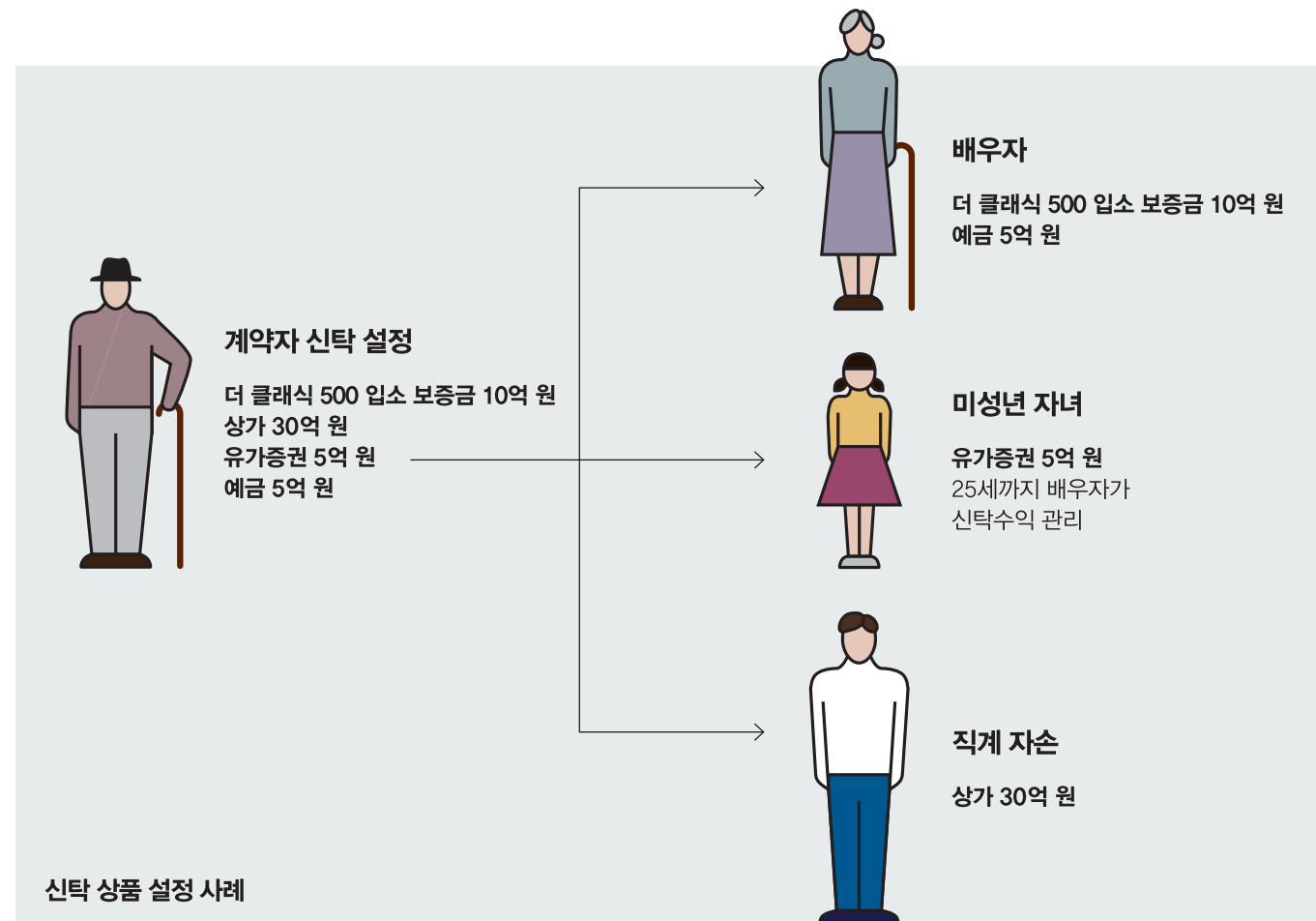
위치 더 클래식 500 빌딩 A동 4층

## 더 클래식 500·KEB하나은행 공동 개발 “평생 안심” 시니어 신탁 상품

더 클래식 500과 KEB하나은행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 안심 시니어 신탁 상품’을 공동 개발했다.

치매가 와도,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내 재산을 내 의지대로 계획할 수 있고, 자손들 간의 분쟁도 미리 정리해둘 수 있는 상품이다.

글 이영진 에디터



### 인생 숙제, 신탁으로 푼다 평생 안심할 수 있는 신탁 상품

지난 8월 28일, 더 클래식 500 A동 4층 다목적실 2에서 KEB하나은행 ‘평생 안심 시니어 신탁 상품’ 특별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참석 예상 회원 수를 훨씬 넘기며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2부로 구성된 설명회의 1부였던 이날은, 노후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써의 신탁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배정식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 ‘인생 숙제, 신탁으로 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배 센터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시니어들이 상속의 범위나 요양 관리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는 신탁상품으로 노후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회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배 센터장이 노후 고민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KEB하나은행의 ‘평생 안심 시니어 신탁 상품’은 은퇴 고령층의 생전 주거 지원부터 치매로 인해 후견이 필요한 고객의 신탁 자산관리와 사후 상속설계, 집행, 장묘, 기부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유연 대응 신탁 상품은 생전에는 자산관리 기능을 하다가 계약자 사망 후 계약대로 집행해준다. 금융사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유연장과는 달리 추후 재산을 받을 사람과 시기에 제한이 없는 것도 매력적이다.

추후 신탁상품 설명회 2부에서는 회원들의 개별 상담 후 니즈를 반영하여 보다 더 관심도 높은 주제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더 클래식 500과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각 업계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함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더 클래식 500 주거신탁 정보

#### 주거신탁

더 클래식 500 입소 보증금을 운용하여 고객의 생활비를 하나은행에서 지불해주며, 약정(퇴소, 사망 등)한 시기에 은행에서 정산 후 지정 수익자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

#### 요양신탁

미래 요양이 필요할 경우 미리 납부한 선수이용료를 활용하여 요양 비용을 은행에서 지불해주며, 퇴원이나 사망 시 은행이 정산 후 지정 수익자에게 반환해주는 상품

#### 장묘기부신탁

본인의 뜻으로 장묘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은행이 신탁한 장묘비용을 지불해주며, 정산 후 지정 수익자 또는 지정 기부처에 지급하는 상품

문의 02-2218-5512, 5543





## 커뮤니티 프로그램

2017. 09. 01 — 2017. 11. 30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강사명	수강료	●개편 ●신규개설
<b>무료</b>	<b>스포츠</b>					
굿모닝! 아침체조	월~금	07:30 ~ 07:50	4층 다목적실1	이혜숙	무료	
검도	화, 목	19:00 ~ 21:00	4층 다목적실1	이봉주 회원(재능기부)	무료	
	<b>학습</b>					
실생활 스마트폰	화(월 3회)	10:00 ~ 11:30	4층 다목적실2	조민하	무료	
	<b>예술</b>					
● 신나는 노래교실	금	10:30 ~ 11:30	4층 다목적실2	미정	무료	
예술치유반	수	14:30 ~ 15:20	4층 다목적실2	황인옥	무료	
● 문향루(서예 동호회)	수	16:00 ~ 17:30	A동 7층 다알리아2	이병태	무료	
<b>유료</b>	<b>스포츠</b>					
● 바둑 입문반	목	16:00 ~ 18:00	A동 5층 스타 게임룸	조혜연	7만 원(입주회원20%할인)	
탁구교실(1:1 개인교습)	월, 수	13:00 ~ 15:30(10분)	B동 4층 GX룸	김연경	5만 원(1개월)	
왕초보 라틴(차차차)	월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김복옥	5만 원(1개월)	
왕초보 모던(왈츠)	목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진보성	5만 원(1개월)	
지루박&부르스 부부반(커플)	미정(3팀 이상 시 개강)		4층 다목적실1	박강현	5만 원(1개월)	
지루박&부르스 초급반	수	16:00 ~ 16:50	4층 다목적실1	박강현	5만 원(1개월)	
발레 기초	목	16:00 ~ 17:30	4층 다목적실1	최성이 회원	6만 원(1개월)	
1:1 개인교습	개별	시간조정	4층 다목적실1	김지은(문의: *5516)	50만 원(10회)	
	<b>학습</b>					
● 스마트폰 첫걸음	화, 목	09:00 ~ 10:2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컴퓨터 왕기초반	화, 목	10:30 ~ 11:5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A)	화, 목	14:30 ~ 15: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왕초보 영어회화	화, 목	16:00 ~ 16:5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B)	화, 목	17:30 ~ 18: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C)	화, 목	20:00 ~ 21:00	4층 다목적실3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초급)	월, 수	19:00 ~ 20:0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중급)	월, 수	10:00 ~ 11:3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	6만 원(3개월)	
	<b>예술</b>					
토요 남성 통기타	토	14:00 ~ 15:3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토요 여성 통기타	토	15:40 ~ 17:1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1:1 개인 통기타 교습	개별	시간조정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4만 원(1회)	
예술치유 미술중점반	목	15:00 ~ 17:00	4층 다목적실3	황인옥	8만 원(재료비 별도/월)	
그림교실(서양화)	토	19:00 ~ 21: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은규	6만 원(1개월)	
도예반 '마음을 빛다'	월	15:00 ~ 17: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재철	12만 원(재료비 포함/월)	

## 동호회

###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하에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호회

일시 월 15:50 ~ 17:20

회비 연 24만 원

### 댄스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일시 월·화·목·금 09:00 ~ 09:50 (주 4회)

회비 연 35만 원

###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혹서기·혹한기 휴회)

회비 연 10만 원

###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바둑대회: 반기별 1회)

일시 금 15:00 ~ 18:00

회비 연 10만 원 (입회비: 10만 원)

### 검도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

강사 이봉주 회원 재능기부

일시 화·목 19:00 ~ 21:00

회비 무료

###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일시 수 16:00 ~ 17:30

회비 무료

### 인터넷

온라인상 메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 탁구

순발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만인의 스포츠

일시 월·수 13:00 ~ 15:30

회비 개인 별도 (전문 코치의 1:1 맞춤형 지도)

## 2017년 가을 이벤트 캘린더

### 9월

					1	2			
1주차			3	4	5	6	7	8	9
2주차			10	11	12	13	14	15	16
3주차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주차 **신규 프로그램:** 바둑 입문반, 스마트폰 첫걸음반  
**개편:** 문향루 서예동호회 강사 개편  
**이벤트:** 더 클래식 500 걷기축제-굿모닝! 파워워킹  
**프로그램:** 꽃보다청춘-국내코레일 기차여행  
**동호회:** 숙녀회 골프모임

### 10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주차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주차			29	30	31				

- 3주차 **동호회:** 숙녀회 골프모임  
**자원봉사단:** 하반기 후원회원 초청행사  
**4주차 동호회:** 바둑동호회 추계 바둑대회  
**문화데이:**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 11월

						1	2	3	4
2주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주차			19	20	21	22	23	24	25
4주차			26	27	28	29	30		

- 2주차 **문화데이:** 가곡음악회  
**3주차 동호회:** 숙녀회 골프모임  
**4주차 이벤트:** 커뮤니티 전시전

문의 02-2218-5000

### KEB하나은행과 시니어 신탁상품 개발 업무 협약



더 클래식 500과 KEB하나은행이 지난 6월 12일에 '시니어 신탁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영향에 따라 이번 MOU는 더 클래식 500 회원의 자산관리와 주거, 요양, 기부 등의 시니어 맞춤 신탁상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니어와 금융산업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양사가 협력해 시니어 신탁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과 업무 협약



더 클래식 500이 지난 6월 16일에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건대스타시티점과 시니어 시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각각 시니어 업계와 유통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양사는 적극적인 시니어 마케팅을 펼치며 상호 간 우호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교육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더 클래식 500 에머전시 ID카드 사업의 일환으로, 카드의 효용 가치가 높아질수록 입주회원은 품격 있는 대접과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 하나투어·모두투어와 시니어 마케팅 업무 협약



지난 7월 25일, 더 클래식 500이 하나투어·모두투어와 시니어 마케팅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다양한 여행 동호회와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건강을 도모해온 더 클래식 500은 하나투어·모두투어와 함께 더욱 특별한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더 클래식 500 입주회원에게 특별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에머전시 ID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에머전시 ID카드에는 회원 개인의 의료정보를 QR코드에 담아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의료 서비스이다. 더 클래식 500은 회원들이 항상 에머전시 ID카드를 소지하도록 다양한 관계사와 MOU를 맺고 생활 속 혜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GYM



GYM



SWIMMING



SPA

FOR YOUR  
HEALTHY LIFE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 90 Neungdong 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 +82-2-2218-5800  
WEBSITE : www.pentaz.co.kr

###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관심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우거져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개인** | 구영희, 권상문, 김계정, 김광임, 김난자, 김성식, 김연남, 김영숙1, 김영숙2, 김영자, 김은곤, 박노옥, 박병일, 박은배, 박정희, 백광현, 서양자, 서오순, 서은자, 선우정자, 송은호, 신선화, 오명, 오옥환, 우인성, 유문상, 유송자, 윤갑석, 윤영학, 이문숙, 이선경, 이선엽, 이승연, 이영자, 이용희, 이유리, 이정재, 이정희, 이지윤, 이춘애, 이혜숙, 이해정, 익명1, 정동화, 정인조, 정일모, 정재원, 조은경, 지정임, 채순교, 채지범, 최만임, 한상현, 허순영, 홍사중, 홍순남, 황재영 / **단체** | 황화방(더 클래식 500 이화여고 동문회)

**정기후원 및 활동 문의** | 02-2218-5549(김인우 사회복지사)/**정기후원계좌** | 국민은행(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9-500-500-5000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안내문의 : 02) 2218-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http://www.theclassic500.com)